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2월

선교편지 제 128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팔라야 예일 교회' 건축을 10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잡초로 무성했던 곳이 이제는 벽돌로 된 든든한 교회가 우뚝 들어서고, 파란색 지붕도 산뜻하게 얹혀 졌습니다. 아직도 완공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건축 공사 현장 속에서 기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과정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지만, 이제 곧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수 많은 성도들이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두 개의 교실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가득하여, 헌신된 교사들과 함께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는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기도로 시작되는 건축 현장은 이미 교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교회 건축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용', '정직', '약속', '시간' 이라는 개념이 매우 관대하고 다양한 이곳에서, 건축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벽찰 때가 많습니다. 매일 외적 공격과 내적 혼란을 극복해야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자들의 공격도 있고,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과 같은 무리도 있습니다. 또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5년전 디고스 예일 교회를 건축할 당시 경험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방법과 세력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축을 위하여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지혜가 충만하고 신실한 자들을 예비하여 보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다름아닌 아팔라야 교회의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오지'와 '에릭' 친형제입니다. 디고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잘 섬기는 동서지간의 '세리'와 '엔엔' 여집사의 남편들인데,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워낙 수줍음이 많아서 그동안 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곳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디고스 교회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두 형제의 활약으로 말끔하게 복구되는 것을 확인하고 아팔라야 교회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의 진면목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유능하고 성실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작업자들에게는 한 주간동안 수고한 주급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즉, 한 주간이 주급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각박한 생활로 인하여 '저축'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주급으로 생활은 하겠지만, 건축이 끝나면 작업자들은 또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와 그들의 부인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미국의 401 (k) 퇴직 연금과 같이 매주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이상의 액수를 적립해주어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들보다는 알뜰한 부인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난생 처음 저축을 하게 되어 얼마나 기뻐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작업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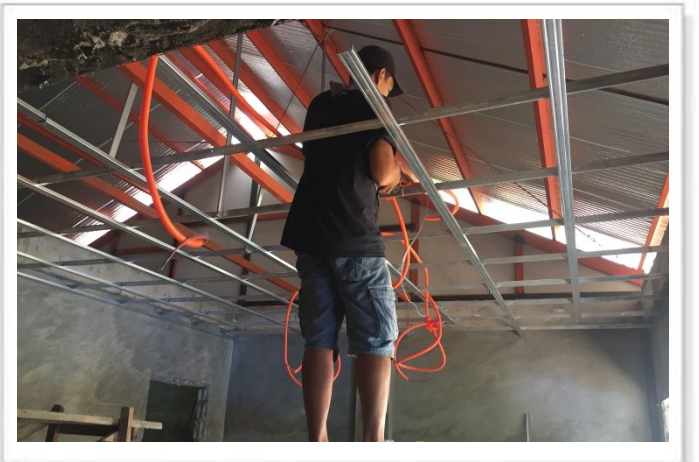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척박한 선교지에 '교회 건축'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2)

기도 제목

1. 디고스에일교회, 익핏교회, 바카카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아팔라야 예일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 A.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 B. 자연 재해가 없도록
 - C.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 D.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